
정책참고자료

2017-21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위해한국과 일본이 함께 지혜 모은다	4
--	---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7
---------------------------------	---

3 중소벤처기업부

새로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대 연다 - 2017 동반성장주간 개막 -	9
--	---

4 교육부

중1 자유학년제,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약 1,500개교에서 시작	15
--	----

5 미래창조과학부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개최	19
----------------------	----

6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합동,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25
--	----

7 농림축산식품부

오색단풍이 완연한 가을! 특별한 농촌여행을 미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28
---	----

8 환경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환경기술을 논하다 _____ 33

9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을 위해 차일단과 함께 해요! _____ 42

10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0%” _____ 45

11 국토교통부

평창 선수단,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온다 _____ 50

12 해양수산부

해외에서 우리 수산식품 판촉행사 동시 개최 _____ 56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위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지혜 모은다

- 제22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서울에서 개최 -

- 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정책과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혜와 경험을 교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6일~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2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
- 올해로 22회 째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간 합의(노태우 대통령 - 가이후 총리)에 따라 시작되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 이 회의는 지방행정 현안 및 양국 공통 관심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행정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지난해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역진흥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일본에서 실시하는 '지방창생 정책' 등에서 시사점을 얻어,
 - 도시 청년이 지방 현장에서 활동하게 하는 청년희망뿌리단과 고향 사랑기부제를 도입하는 등 교류회의를 통한 논의 내용들을 우리 지방행정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 총무성 야스다 미츠루(安田 充) 사무차관 등 일본측 방문단*은 이번 교류회의 참석을 위해 6일 방한해 양일간 세미나에 참석한 뒤

- 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한·일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상호 이해를 같이 할 예정이다.

* 총무성 사무차관, 대신관방총괄심의관, 지역자립지원과장 등 6명

- 9일에는 케이티(KT), 농어촌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인 교동도 사업 현장을 찾아 가상현실관(VR), 실버케어 솔루션*,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역발전 현장을 시찰한다.

* 독거노인 가구에 움직임 감지 센서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 이와 관련, 행안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 추진 중인 지능형 정부 및 스마트네이션 추진과제도 일본과 공유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세미나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장기적 경기침체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외국인 주민정책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을 공통 주제로 양국 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 세미나는 총무성과 행정안전부 양 부처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한 외국인 주민들과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 계획이다.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27년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며,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왔다.”라며, “이번 교류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주요 일정

일자	시간	일정	비고
11.6 (월)	13:50~14:50	○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방문	
	16:00~18:00	○ 세미나 I - 주제: 외국인 주민정책을 통한 지역발전전략	서울 롯데호텔
	19:30~21:30	○ 환영 리셉션	
11.7 (화)	09:30~11:30	○ 세미나 II - 주제: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서울 롯데호텔
	13:00~14:40	○ 서울혁신파크 방문	
	15:30~16:00	○ 행정안전부 장관 예방	
	16:00~18:00	○ 주한일본대사관, 서울글로벌센터 방문	
	18:30~20:30	○ 총무성 주최 답례연	
11.8 (수)	09:30~	○ 충남 및 인천 정책현장 방문	
11.9 (목)	09:00~	○ 인천 교동도 방문 ○ 출국	

2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적 정부 소통 채널’”
‘대한민국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사업’에서
‘우수 행정서비스’로 선정돼

-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시스템 ‘국민신문고’가 국민이 직접 선택한 ‘우수 행정서비스’에 선정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대한민국 전자정부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자정부 50선’ 국민 참여 투표결과 국민신문고가 우수 행정서비스로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다고 1일 밝혔다.

* 대한민국 전자정부 추진 50주년을 맞아 지난 반세기의 업적평가와 미래 50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을 선정 (인물 30선, 행정서비스 10선, 산업체 5선, 단체 5선)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종 신고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창구로 2005년에 구축됐다.

국민신문고는 구축 당시만 해도 대표적 기능이 ‘민원’과 ‘제안’에 그쳤으나 점차 그 기능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정책 참여를 돕는 경로 역할을 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정책참여’나 ‘예산낭비신고’, ‘공익신고’ 창구를 마련해 ‘여기 저기 찾아다닐 필요 없는 국민신문고’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이를 계기로 국민신문고는 2011년에 유엔(UN)으로부터 ‘공공행정상 *’(Public Service Awards)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왔다.

또 2016년에는 튀니지에 우리 국민신문고를 전수하는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전자정부 사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 2000.7월 UN총회 결의로 제정된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 우리나라는 2003년(나라장터), 2007년(출입국 심사서비스), 2009년(수질공개서비스) 등이 수상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금번 전자정부 50선 국민 참여 투표에서 국민신문고가 우수 행정서비스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국민께 깊은 감사 드린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에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발전하기를 원하는 염원이 담겨있음을 인식하고 막중한 책임감으로 더 한층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시대 연다

- 2017 동반성장주간 개막 -

- KT 윤경림 부사장, 진성전자 서길호 대표 동탑훈장 수상 -

- 15대 대기업 임원과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간의 동반성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상생협력 시대를 열기 위한 소통 마당이 열렸음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는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와 함께 11.1(수) 14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7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개최하였음

○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생협력’을 슬로건으로 열린 금년 동반성장주간* 행사는 대기업 간담회, 동반성장 대토론회,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열렸으며,

* 11월 첫째 주로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함(상생법 제20조의 3)

○ 박정 국회의원, 중기부차관 등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동반성장 유공자를 포상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

■ 주요 참가자 : 최수규 중기부 차관,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박정 국회의원, 정운찬·유장희 前 동반성장위원장 등 300여명

□ 기념식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도 진행되었음

* 정부 포상(44점) : 동탑산업훈장(2), 산업포장(2), 대통령표창(5), 국무총리표창(6), 중기부장관 표창(26), 산업부장관 표창(3)

- ① 3,400여 중소기업사의 연매출 5조원 실현에 기여한 KT 윤경림 부사장과 ② 전자부품 정밀 패키징 기술을 개발해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한 진성전자 서길호 대표이사가 동탑훈장의 영예를 안았으며,
 - ① 기술제안전시회를 도입, 협력사의 매출에 기여한 LG생활건강 박현영 상무와 ② 110여명의 전문지원 조직을 구성, 협력사 품질 향상에 기여한 LG전자 권순걸 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
-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국민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자”고 강조하며,
- “대·중소기업간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생협력의 과실이 2~3차까지 돌아가 상생협력 문화가 우리사회 곳곳에 스며들게 하자”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문하였음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념식 행사에 앞서 15대 대기업* 임원과 함께 「상생협력 정책 간담회」를 개최(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주재)하고,
- * 참여기업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수펙스추구협의회, LG화학, 롯데홈쇼핑, 포스코, GS리테일, 한화케미칼, 현대중공업, 신세계, KT, 두산인프라, 대한항공, CJ제일제당, 부영
- 정부 상생협력 정책 방향과 대기업의 상생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 한편, 기념식에 이어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동반성장 대토론회(11.1,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반성장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11.1, 송도컨벤시아), 동반성장 협력사 Day(10~12월, 전국) 등 관련 부대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임

□ 행사 개요

- (목 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자를 선정·격려하고 동반성장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장 마련
- (일시/장소) 2017. 11. 1(수), 14:00~15:00 / 중기중앙회 그랜드홀
- (참석자) 대·중소기업 임직원, 유관기관, 수상자 등 300여명
 - * 주요 참석자 : 중기부 차관, 동반위원장, 박정국회의원,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견련 부회장 등
- (주요내용)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총 44점) 등 부대행사
 - * 포상규모 : (훈장) 2점, (포장) 2점, (대표) 5점, (국표) 6점, (장표) 29점

□ 행사 주제 :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생협력”

□ 진행 순서[안] * 사회자 : 문소리 아나운서(전 MBC 아나운서)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02')	▶ 개식 및 국민의례	동반위원장
14:02~14:05 (03')	▶ 주제영상 상영	
14:05~14:08 (03')	▶ 영상 메시지	장병완 위원장
14:08~14:11 (03')	▶ 환영사	차관님
14:11~14:14 (03')	▶ 축사	박정 국회의원
14:14~14:34 (20')	▶ 포상수여(41점)	차관
14:34~14:36 (02')	▶ 포상수여(3점)*	산업부
14:36~14:50 (14')	▶ 우수사례 발표 (2개사)	KT / LG생활건강
14:50~15:00 (10')	▶ 기념공연	퓨전클래식
15:00	▶ 폐식	사회자

* FTA특별유공표창(3점)은 산업부표창으로 산업부에서 수여

참고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자 포상 대상자

□ 포상(총 44점) : 동탑산업훈장 2,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5, 총리표창 6, 중기부장관표창 26, 산업부장관표창 3

구 분	훈 격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동반성장 유공자 (20)	동탑산업훈장(2)	(주)케이티	부사장	윤경림	
		(주)진성전자	대표이사	서길호	
	산업포장(2)	(주)엘지생활건강	상무	박현영	
		엘지전자(주)	부장	권순걸	
	대통령 표창(1)	코웨이(주)	상무	최영진	
	국무총리 표창(3)	현대자동차(주)	연구원	김대훈	
		(주)와이앤에이치	대표이사	구경식	
		다인휴즈	대표이사	전태화	
	중기부장관 표창(12)	한국남부발전(주)	차장	장호성	
		한국가스기술공사	처장	이호수	
		(주)효성	상무	권태수	
		한국중부발전(주)	처장	이종국	
		한국동서발전(주)	센터장	강용주	
		한국환경공단	팀장	권용천	
		삼성전자(주)	Senior Professional	강한수	
		두산중공업(주)	부장	장문조	
		(주)비지에프리테일	대리	지현우	
		엔브이에이치코리아(주)	과장	유종현	
		(주)유라코퍼레이션	이사	유승우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실장	서연종	
성과공유 우수기업 (10)	대통령표창(2)	한국동서발전	사장	김용진	단체
		성일터빈	대표이사	우타관	단체
	국무총리표창(2)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장병우	단체
		우진전장	대표이사	정부영	단체
	중기부장관 표창(6)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이동호	단체
		다리컨설팅	대표이사	정두철	단체
		도로교통공단	사장	신용선	단체
		아인픽취스	대표이사	최영민	단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관섭	단체
		나다	대표이사	김민호	단체
공공기관 평가 (3)	대통령표창(1)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정하황	단체
	중기부장관 표창(2)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박기동	단체
		한국전력기술(주)	사장	박구원	단체
FTA 활용 협력 동반성장 유공(5)	대통령표창(1)	(주)서연전자	대표이사	김상기	단체
	국무총리표창(1)	경기서북부FTA센터	팀장	이지인	
	산업부장관 표창(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팀장	강신학	
		엘지하우시스	대리	박지혜	
		(주)엠에스오토텍	대표이사	이태규	단체
우수 수탁기업 협의회(6)	중기부장관 표창(6)	현대오토에버(주)	사원	천병진	
		(주)에코파워텍	대표이사	조윤숙	
		LG생활건강협력회사 최고경영자 Academy	-	-	단체
		ACE Club	-	-	단체
		WE-POWER협의회	-	-	단체
		현성회	-	-	단체

□ 행사 개요

- **(추진목적)** 동반성장주간행사(11.1)시 대기업과 상생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상생협력 현황 공유 및 현장의견 수렴
- **(행 사 명)** 상생협력 정책 소통 간담회
- **(일시/장소)** 2017. 11. 1(수), 12:00~13:40 / 중기중앙회 중회의실(2층)
- **(주요내용)** ① 중기부 상생정책 방향 및 협조요청 사항
② 대기업 상생협력 계획 및 건의사항

□ **(참석 대상)** 소상공인정책실장, 15대 대기업 임원 등 18명

- 중기부 : 소상공인정책실장(주재), 상생협력정책과장 등
- 동반위 : 운영국장
- 기 업 : 대기업 임원 15명 <참고 4>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2:00 ~ 12:02 (0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상생협력정책과장
12:03 ~ 12:08 (05')	▶ 인사말씀	소상공인정책실장
12:08 ~ 12:15 (07')	▶ 안건발표	상생협력정책과장
12:15 ~ 13:30 (75')	▶ 상생협력 정책 토론 * 기업별 상생협력 현황(계획) 설명, 대기업 협력 방안 및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	참여 대기업 등
13:30 ~ 13:33 (03')	▶ 마무리 말씀	소상공인정책실장
13:33 ~ 13:40 (07')	▶ 기념촬영 및 폐회	

참고4**간담회 참석 대기업 명단**

* 참석대상 : 15대 그룹 (자산총액 順)

연번	기업집단명	회사명	이름	직위	참고사항
1	삼성	삼성전자	조지현	상무	• 상생협력센터(팀장)
2	현대 자동차	현대자동차	박광식	부사장	• 정책조정팀장
3	SK	SK수펙스추구 협의회	구영모	상무	• SK텔레콤 사업개발부문 임원
4	LG	LG화학	박준성	상무	• LG화학 대외협력담당
5	롯데	롯데홈쇼핑	전성율	상무	• 대외협력부문장 • 커뮤니케이션부문장
6	포스코	포스코	김학용	전무	• 포스코건설 상무 • 설비자재구매실장
7	GS	GS리테일	김종수	상무	• 편의점사업부 MD부문장
8	한화	한화케미칼	조 원	상무	• 기획부문장
9	현대 중공업	현대중공업	박인권	전무	• 통합구매부문장
10	신세계	신세계	홍순상	상무	• CSR 담당
11	KT	KT	윤경림	부사장	• 미래융합사업추진실장
12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박성권	전무	• 두산인프라코어 HR 총괄 • 두산인프라코어 인천공장장
13	한진	대한항공	최우종	상무	• 항공우주사업본부 전략기획팀장
14	CJ	CJ제일제당	임석환	팀장	• CSV경영팀장
15	부영	부영주택	천승희	전무	• 기획관리본부담당

중1 자유학년제, 내년부터 희망하는 학교 약 1,500개교에서 시작

-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확정
- ◆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자유학기', 교실 혁명·공교육 혁신 기대
- ◆ 자유학년제 참가 중1학생, 내신성적 고입 전형에 미반영

- ❖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경험을 쌓으며 보낸 자유학기를 통한 나의 경험과 느낌들은 분명 나를 올바른 어른으로 키워 주리라 믿는다”(학생 안00)
- ❖ “어렵고 지겹던 수학 수업이 질문할 수 있는 친구와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기에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아이들, 자유학기의 수업은 아이들과 눈 한 번 더 맞추어 수업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 (교사 이00)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1월 6일(월)에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동 계획은 지난 9월 12일 시안으로 발표한 후, 시도교육청 협의, 현장 포럼, 개별 학교의 자유학기제 확대 수요 파악 등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되었다.
-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은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 자유학기는 모든 학교가, 자유학년과 연계학기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 작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 온 자유학기는 내년에도 한 학기를 기존과 같이 전국의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한다.
※ (자유학기) 1-1학기, 1-2학기, 2-1학기 중 한 학기(학교에서 운영 학기 선택)
- 또한, 시안을 바탕으로 학교의 수요를 파악한 결과 내년에 약 1,500개교

(전체 중학교의 약 46%)에서 자유학기를 1학년으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를, 약 500여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 이후 **연계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 자유학기 이후에도 한 학기 이상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자유학기 활동을 일부(51시간) 운영('17년 전국 406교)

- 자유학과 자유학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운영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중점을 둔 평가를 실시한다.
- 이와 함께, 학생의 역량 함양을 위해 학생의 관심과 학교의 여건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주제선택활동 등 자유학기 활동은 자유학기에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에는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운영하며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 (예시) (1학기) 170시간+ (2학기) 51시간/ (1학기) 102시간+ (2학기) 119시간 등

※ (자유학기 활동) 주제선택활동, 진로탐색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2. 자유학년제, 제도와 시스템 지원으로 기반도 탄탄하게

- 자유학년제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이미 입법예고를 완료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 달 안에 개정을 완료한다.

* (현행) 중학교의 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 → (개정안)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

- 또한, 자유학기 한 학기 동안 교과와 자유학기활동 수업을 통한 개별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입력한 것을 자유학년에는 1학년 2개 학기에 입력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한다.
-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1학생들의 교과 내신 성적을 고입전형에 미반영하는 사항을 내년 3월에 조기 예고*할 예정이다.

* '21학년도 고입전형('20.3. 예고)에서 '18학년도 1학년 자유학년제 참가 학생의 교과 성적은 미반영됨을 '19년 고입전형계획 공고 시('18.3) 조기 예고

3. 자유학기는 더욱 내실 있게, 자유학년도 안정적으로

- 전체 중학교에서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희망하는 학교에서 자유학년 및 연계학기를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18년 특별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 학교별 연간 평균 지원액(학교규모별 차등 지원) : 자유학기(18백만 원 내외, 전체 중학교), 자유학년(추가 10백만 원, 희망교), 연계학기(추가 7백만 원, 희망교)

- 지역의 특색을 살려 자유학년·자유학기를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예시)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및 대학 등 연계 체험활동 지원, 타학교급 연계 강화, 교원업무 경감 모델 개발 등 11개 교육청 제안 과제

- 또한, 자유학과 자유학년을 모든 지역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자유학기 현장지원단 중심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 지역별 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며 농산어촌 및 별도 지원이 필요한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질 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한다.

- 특히, 단순 일회성 체험에서 벗어나, 교실수업과 연계한 의미 있고 질 높은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민간·대학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체험처와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하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앞으로도 자유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자유학기제 확대·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실 혁명과 공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참여
이공계 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연계 지원하여 일자리 중심 혁신성장 견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가 11월 3일(금)에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행사 개요>

- 일 시: '17.11.3(금) 10:00~17:00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B2 컨벤션홀)
- 규 모: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참여
- 주 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개막행사 : '17.11.3(금) 11:00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 로비

- 본 박람회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원, 엔지니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개발자 등 이공계 분야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공계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 이번에 열리는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에는 올해 하반기 이공계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월드클래스 300, 청년친화 강소기업, 장영실상 수상,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인증 등을 받은 우수 중소·중견기업 100개사가 참가한다.
- 박람회에 참여를 원하는 이공계 미취업 청년은 사전에 박람회 홈페이지(rndjob.jobkorea.co.kr)와 이공계 인력중개센터(www.rndjob.or.kr)를 통해 온라인 취업 상담 및 무료 이력서 첨삭지도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기업 추천을 받아 현장 면접을 신청할 수 있어,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 행사 당일에는 구직자에게 적합한 기업·직무 추천 및 이력서 자문, 여성 일자리 상담, 예비 청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도 등 인재 맞춤형 전문 상담·자문을 제공하며,

- 아울러 대기업 및 유망기업의 채용설명회* 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기업의 인재상, 면접 시 유의사항 등 경험 많은 인사담당자 시각에서 보는 취업성공 비결을 알려 줄 예정이다.

* 두산그룹, LG디스플레이, GS칼텍스, 오스템임플란트

- IR52 장영실상,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한 중소·중견기업 이공계 선배*를 초청하여 취업 경험담과 연구개발 노하우 전수 등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직무 멘토링도 실시한다.

* (주)테키스트 한민진(대한민국 엔지니어상), 한국콜마(주) 고은아(IR52 장영실상)

□ 본 행사에는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 뿐만이 아니라 “X-corps”*,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이공계 여학생 공학 연구” 등 현장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학부생 또한 함께하여 현장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와 인재상을 확인하고, 이공계 선배 멘토링 및 직업적성검사 등을 통해 향후 과학기술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X-corps(현장맞춤형 이공계인재양성) :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실전문제 솔루션 제시 연구

** 지역신산업선도인력양성 : 지역전략산업에 필요한 연구인력 양성

- 정부는 이번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활용하여 참가기업과 이공계 우수인재와의 채용연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젊은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개막식에 참석하는 과기정통부 이진규 제1차관은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새정부 경제정책기조인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는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과 이공계 인재를 연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와 과학기술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계획(안)
2.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포스터
3.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참가기업 현황

참고 1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계획(안)

□ 추진 배경

- 이공계 분야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이공계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이공계 인재간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 행사 개요

- 행사명 :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 일 시 : '17. 11. 3(금) 10:00~17:00 (세종대학교 컨벤션홀)
- 규 모 :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 주 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 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후 원 : 세종대학교, 한국고용정보원,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청년희망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전국대학교 취업관리자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KB국민은행 등

□ 행사장 구성

- 채용관
 - (규모) 구인기업 100개사
 - 기업 인사담당자와 1:1 현장면접 및 채용설명
- 인재 맞춤 컨설팅관
 - (일자리 매칭 및 이력서 컨설팅)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추천 및 현장면접 연계, 이력서 첨삭지도 등 취업상담 등
 - (여성 컨설팅) 이공계 여성 대상 진로 및 취업상담 등
 - (창업 컨설팅) 예비 청년창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제공 등

○ 홍보관

- 참여기관별 취업 관련 각종 정보 및 프로그램 홍보

- 과기정통부, 산업기술진흥협회 : 이공계 분야 취업지원사업 및 인력지원사업 안내 등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이공계인력중개센터 등)
- 세종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청년희망재단, 고용정보원, 여성과기인지원센터

○ 취업지원관

- (직업심리검사) 구직자의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을 위한 검사 실시
- (기타)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이미지 메이킹 등

□ 부대행사

○ 채용설명회

- 대기업 및 유망기업의 채용계획, 인재상 등 채용정보 제공

○ 직무 멘토링

- 이공계 선배에게 듣는 직무 이야기 및 질의응답

구분	시 간		참 여 기 업	장 소
채용설명회	11:00~11:30	30분	○ 두산그룹	R&D JOB 콘서트관 (80석 규모)
	11:30~12:00	30분	○ LG디스플레이	
	12:00~12:30	30분	○ GS칼텍스	
	14:30~15:00	30분	○ 오스템 임플란트	
직무멘토링	15:00~15:30	30분	○ (주) 테키스트 한민진(대한민국 엔지니어상)	
	15:30~16:00	30분	○ 한국콜마(주) 고은아(IR52 장영실상)	

참고 3

젊은 과학기술인 일자리 박람회 참가기업 현황

번호	기업명	번호	기업명
1	가람환경기술(주)	51	영풍정밀(주)
2	(주)경인양행	52	(주)오상헬스케어
3	(주)글랜젠	53	오스탬임플란트(주)
4	(주)금영제너럴	54	(주)오이솔루션
5	(주)기산텔레콤	55	(주)우신캠텍
6	(주)나노텍	56	(주)우심시스템
7	나비스오토모티브시스템즈(주)	57	(주)원진일렉트로닉스
8	(주)나온웍스	58	(주)원텍오토메이션
9	(주)나우테크	59	유니온라이트(주)
10	(주)네비웍스	60	(주)유비벨록스모바일
11	(주)누리어시스템	61	(주)유진로봇
12	(주)뉴로메카	62	(주)이다
13	(주)다림바이오텍	63	(주)이스트소프트
14	(주)다트비전	64	(주)이아이라이팅
15	(주)대동이엔지	65	(주)이진스
16	대양산업	66	(주)인라이플
17	(주)데이터스트림즈	67	(주)인브레인
18	동원펌프(주)	68	(주)인성메디칼
19	(주)디리아	69	(주)인우코퍼레이션
20	(주)디에스멘토링	70	(주)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21	(주)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71	재경전광산업(주)
22	(주)리버트론	72	지투파워(주)
23	(주)마스테코	73	(주)진성이엔지
24	(주)마이크로사이언스테크	74	참엔지니어링(주)
25	(주)메디젠휴먼케어	75	(주)창성에이스산업
26	(주)몽태랑인터내셔널	76	(주)카스
27	(주)미래컴퍼니	77	(주)캠시스
28	(주)바디프랜드	78	(주)케이엔에스컴퍼니
29	(주)버즈니	79	(주)케이엠더블유
30	(주)부흥산업사	80	(주)케이엠티엘
31	(주)비아이매트릭스	81	(주)케이텍정보통신
32	(주)비스바이오	82	코리아디지털(주)
33	(주)삼보에이팩	83	(주)코리아레바록
34	(주)삼양발브종합메이커	84	(주)크로마아이티
35	(주)삼영에스앤씨	85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36	(주)삼환티에프	86	(주)토마토시스템
37	(주)서진캠	87	(주)티플러스
38	선진정공(주)	88	(주)편두리
39	(주)성광유니텍	89	(주)프로텍
40	(주)스타메드	90	하나마이크론(주)
41	(주)스타코리아무역	91	한경닷컴(주)
42	(주)신우유비코스	92	(주)한국HPC
43	(주)아이씨디	93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주)
44	(주)아이토크콘트롤즈	94	한국오츠카전자(주)
45	(유)아홉	95	(주)한국정보시스템
46	(주)에스폴리텍	96	(주)한미이엔씨
47	(주)에이텍	97	해동브릿지(주)
48	(주)에코센스	98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49	(주)엔씨에스	99	(주)휴엔시스템
50	(주)영린기	100	희명정보통신(주)

* 참가기업 가나다 순

민·관합동,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및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는 11월 3일(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근 한중관계 개선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라는 계기를 방한 관광시장 조기 회복의 전환 국면(모멘텀)으로 십분 활용하고 관광분야에서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민관의 긴밀한 협력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 논의사항을 토대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문체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추가적인 논의 필요 등의 사유로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신설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활용해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경제현안간담회 개요

2.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일시 : '17. 11. 3.(金), 13:30 ~ 14:3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정부) 경제부총리(주재), 문체부 장관,
외교부.복지부.국토부 차관, 관세청장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경기도.강원도 부지사,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 사무총장
- (민간) KCT 코퍼레이션 대표(중국전문 여행사),
롯데 JTB 대표(일본전문 여행사),
대흥여행사 대표(동남아전문 여행사),
메이필드호텔 사장(호텔업계),
(주)이즈피엠피 공동대표(MICE 관광 관련),
서울대학교병원 국제사업본부장(의료관광 관련)

□ 간담회 일정

구분	내용	시간		비고
간담회	기념촬영	13:30~13:32	2'	• 기념촬영
	참석자 인사	13:32~10:35	3'	• 착석 후 참석자 소개 * 부총리 직접진행
	모두말씀	13:35~13:38	3'	• 부총리 모두말씀
	브리핑	13:38~13:48	10'	•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방안」 발표(비공개) *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간담회	13:48~14:28	40'	• 참석자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비공개) * 부총리 주재
	마무리말씀	14:28~14:30	2'	• 부총리 마무리말씀 및 폐회(비공개)

※ 간담회 종료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방안」 기자회견(문체부장관, 14:45~15:15)

1 추진 배경

- 한중관계 개선 및 평창올림픽을 방한 관광시장 회복 계기로 활용하면서, 관광시장 체질개선도 병행 추진

2 주요 내용

① 관광시장 다변화 등 관광시장 균형성장 도모

- 양양공항 입국 동남아(인니·베트남·필리핀) 단체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허용(~'18년 4월 한시)
- OECD국 방문경력이 있는 동남아.中 관광객 대상 복수사증 발급
- 관역안내사 자격시험 완화를 통해 특수어권* 가이드 확충
* 등록 관광통역안내사 수(명, '17년 11월) : 베트남어 30, 태국어 94, 아랍어 6
- 국제선 환승객 대상 72 시간 환승관광 등 관광 프로그램 확대

② 크루즈, 의료관광, MICE 등 고부가가치 관광 확대

- 법무부 지정 크루즈선 탑승 中관광객의 무비자 관광상륙 허가
- '17년 최초로 유치한 동남아 크루즈 노선을 확대·마케팅 강화
- 숙박·쇼핑·공연 등 연관 산업 집적화를 위한 국제회의복합지구·집적시설 신규지정(~'18년 上)

③ 편의시설 확충 등 개별관광 편의 제고

- 여행업 최소자본금 요건 완화(2억 원→1억 원)
- 관광지 무료 wifi 확대 및 빅데이터 기반 개별관광코스 개발
- 고속도로 휴게소·간이정류소 등에 교통수단간 환승시설 확대
- 특정구간에 정액요금을 적용하는 택시 구간요금제 도입('18년)

오색단풍이 완연한 가을! 특별한 농촌여행을 미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 농촌에서의 특별한 하루! -

《 주 요 내 용 》

◆ 농촌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촌체험 행사 실시

○ 강원도 홍천 용오름마을에서 특산물인 무농약 재배 햅을 활용한 '수제맥주 만들기'와 '전통악기 배우기' 체험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 농촌관광 팸투어 개요〉

- 일 시 : 2017.11.04.(토), 강원도 홍천군 일원
- 참 가 자 :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 10여명
- 방 문 지 : 홍천용오름마을,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 주요일정 : 수제 맥주체험, 맥주비누 만들기(용오름마을)

전통악기박물관 관람 및 전통악기 배우기 체험(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일환으로 11. 4(토) 강원도 홍천군 소재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용오름마을과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촌관광 팸투어를 개최하였다.

□ 첫 방문지인 용오름마을은 강원도 홍천군 아미산 깊은 곳에 위치한 곳으로 20년 전부터 ‘홉(Hop)’을 대량 재배해 오고 있다. 이곳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마을 특산물인 무농약 홉을 활용하여 수제맥주 만들기, 맥주비누 만들기 등의 이색 농촌체험을 하였다.

* 홉(Hop) : 맥주 양조에 사용되는 원료, 맥주 특유의 향기와 쓴맛을 주며 맥아즙의 단백질을 침전시켜 제품을 맑게 하고 잡균의 번식을 방지한다.

- 특히, 셰프와 함께 맥주와 어울리는 채소 튀김 등의 안주를 직접 만들어 수제맥주와 함께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 농촌마을 체험 이후에는 우리 전통음악을 이해하고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인근의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으로 이동하여 전통국악공연 관람과 전통악기 배우기 체험을 하며 한국 전통 소리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팸투어에 참여한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은 한국 농촌의 새로운 모습을 경험한 좋은 기회였다고 만족해했으며,

□ 최봉순 농촌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주한대사관, 외국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팸투어를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고, 외국인 대상 농촌관광 콘텐츠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주한 미국대사관 농촌관광 팸투어 일정

일정
요약

광화문출발 → 홍천용오름마을 →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 광화문 도착

홍천 용오름마을 /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시간계획	소요시간	여행코스	비 고
~09:00		▶ 집결완료 후 출발 (서울 광화문)	
09:00~10:30	90분	▶ 이동 (광화문 → 홍천 용오름마을)	이동거리 141km
10:50~11:50	60분	▶ 체험 (맥주비누 만들기)	체험장 사무장 안내
12:00~14:00	120분	▶ 중식 (셰프와 함께하는 요리 체험)	사무장 안내
14:10~16:00	120분	▶ 체험 (수제맥주 만들기)	이장 안내
16:00~16:10	10분	▶ 이동 (수제맥주 체험장→악기박물관)	이동거리 2.4km
16:10~16:50	40분	▶ 체험 (전통악기 배우기)	가이드 안내
16:50~18:50	120분	▶ 이동 (홍천 용오름마을→ 서울 광화문)	이동거리 141km
18:50~		▶ 도착 및 해산	

홍천 용오름마을 및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홍천 용오름마을]

용오름마을 내 홍천관광두레 주민사업체인 마리소리 맥주 마을은 대한민국 최초의 맥주마을로 맥주의 주원료인 홉 (hop)을 재배 및 가공하는 마을로 지역에 귀촌한 청년들이 모여 시작. 20년 전 홉을 대량 재배한 마을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민들이 홉 재배 기술을 보유한 점을 활용해 주민들이 생산한 무농약 홉으로 수제 맥주를 만들고 있음. 또한 관광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먹을거리, 마실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수제맥주 만들기, 맥주비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음



[맥주비누 만들기와 맥주 목욕]

맥주의 글루타티온 성분이 피부노화를 예방하고 거품 속 AHA성분이 피부를 뽀얗게 만들어 환하고 맑은 피부로 가꿔준다고 함. 이를 활용한 맥주비누 만들기 및 맥주거품 목욕은 여성 관광객들이 최고로 꼽는 프로그램이다. 클레오파트라가 미용을 위해 즐겼다는 맥주목욕은 체코를 비롯한 유럽 각지에서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파 비법으로 야외에서 간이로 즐기는 맥주목욕이지만 물에 홉을 비롯한 맥주효소 가루를 넣어 좋은 성분으로 되어 있음.



[셰프와 함께하는 요리 체험]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인 홉을 이용한 요리와 맥주를 이용한 튀김요리 레시피를 시연하고 체험하는 마을요리대회를 즐길 수 있음.



[수제 맥주 만들기 체험]

글로벌 맥주시장의 변화에 맞춰 홍천 용오름마을은 2015년부터 홉 농사를 재개하여, 관광객들에게 맥주들을 제작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효모와 맥아, 호프 펠릿을 이용하여 직접 맥주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맥주가 끓는 동안 다양한 맥주를 시음해 볼 수 있으며, 제작이 완료된 맥주는 3~6개월 발효를 시킨 뒤에 마실 수 있음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전통악기 체험]

우리의 전통음악을 이해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국내 최초의 악기박물관으로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이병욱 교수가 터를 기증해 2007년 11월 개관했다. 국악기와 서양악기 등 현재 전시되고 있는 악기만 무려 120여 점이며 대부분 인간 문화재 명인들이 사용하던 악기와 악기장인에게 기증 받은 것이다. 전시공간과 공연장까지 갖춰져 예약만 하면 악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악기체험도 할 수 있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의 환경기술을 논하다

◇ 환경산업기술원, 11월 1일 ‘2017년 국민공감포럼 및 성과발표회’ 개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1월 1일 서울 당산 그랜드 컨벤션에서 ‘2017년 국민공감포럼 및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날 행사에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 연구자, 국민배심원단*을 비롯해 환경기술 분야 전문가, 대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환경기술에 대해 공유한다.
 - * 환경기술개발의 공정성과 국민 참여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제도. 사업 평가 모니터링, 수요자 중심 기술개발을 위한 의견 제안 등 수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4차 산업혁명과 환경기술개발 발전방향’을 주제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기술의 역할과 국민이 원하는 공공 환경기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토론 패널로 참여한 코웨이(주)의 이영미 차장은 공기청정기의 측정센서로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오염도를 진단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소개한다.
- 환경산업기술원 환경 연구개발(R&D) 국민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택현 배심원은 앞으로는 실시간 환경정보 제공을 넘어 대기 오염, 유해성분 등 위험도 정보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어 성과발표회에서는 공공 환경기술개발사업 65개 과제에 대해 연구현황을 발표하고 성과를 공유한다.

- 특히 야생동물의 생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동물에 부착하는 초소형·초경량 위치추적 단말기를 개발하여, 야생에서 기인하는 질병을 관리하고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발표될 예정이다.
-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사물인터넷 센서 등을 활용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고 대기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소개된다.
- 이날 행사에서 논의된 결과는 사업 기획 시 반영하거나 연구내용을 개선하는 데 적용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수요자 의견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지능·연결 기술을 활용한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복지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1. 추진목적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환경R&D분야의 연구자·국민이 함께 대응 방향 논의 및 연구현황·성과를 공유하여 향후 발전방향 모색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에 대한 국민 및 연구진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 공공 R&D 사업* 연구과제를 연관분야로 분류하여 성과발표 및 연구자 간 정보교류를 위한 발표회 개최
- *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 사업

2. 개요

- 일시 : 2017. 11. 1(수) 9:30~17:30
- 장소 : 당산 그랜드 컨벤션
- 참석자 : 정부, 전문기관, 연구자, 국민 등 총 300여명

3. 주요 내용

- (1부) 공공환경 R&D 국민공감포럼
 - 정부 정책방향 소개, 사업현황 및 추진계획(환경부/기술원)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환경 R&D 발전방향 제언(연구자, 국민 등)
 - 환경 R&D 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발표자 및 참가자 전원)
- (2부) 분야별 공공 환경 R&D 성과발표회 및 포스터 전시
 - 공공 환경기술개발사업의 65개 과제를 기후변화, 대기환경, 생활 환경, 물환경, 자연환경 등 5개 분야로 분류하여 성과 발표

4. 세부 일정

시간	내용	비고
09:00 ~ 09:25 (25 ")	접수 및 등록	
09:25 ~ 09:30 (05 ")	청렴 및 부패방지 홍보 영상상영	
[1부] 국민과 함께하는 R&D 발전방향 토론회		
09:30 ~ 09:35 (05 ")	일정 안내	사회자
09:35 ~ 09:40 (05 ")	개회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9:40 ~ 09:45 (05 ")	축사	환경부
09:45 ~ 09:50 (05 ")	기념촬영	
09:50 ~ 10:05 (15 ")	- 환경정책 방향 및 사업현황·계획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0:05 ~ 10:25 (20 ")	- 4차 산업혁명과 환경 R&D 발전 방향(1) · IoT활용 공기질 모니터링과 Big-Data	(주)코웨이 이영미 차장
10:25 ~ 10:35 (10 ")	Coffee Break	
10:35 ~ 10:55 (20 ")	- 4차 산업혁명과 환경 R&D 발전 방향(2) · 4차 산업혁명과 환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정호 선임연구위원
10:55 ~ 11:10 (15 ")	- 4차 산업혁명과 국민이 바라는 환경기술	환경R&D 국민배심원 김택현 배심원
11:10 ~ 11:25 (15 ")	- 4차 산업혁명과 미래 환경기술	에코프렌즈 김예은 서포터즈
11:25 ~ 11:55 (30 ")	- 국민공감 포럼 패널 토론(패널 : 발표자 전원)	자유 토론
11:55 ~ 13:00 (65 ")	오찬	
13:00 ~ 13:30 (30 ")	포스터 성과 발표(전시)	참가자 전체
[2부] 환경 기술개발사업 성과 발표회		
13:30 ~ 17:30 (240 ")	분야별(기후변화, 대기, 생활, 자연, 물) 성과 발표	분야별 성과 발표
17:30 ~	폐회	

□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국민 삶의 질 저해 오염물질 제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관리 등 정부 주도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정책을 뒷받침하는 공익형 기술 개발
- 총사업비 : 2,523억원(정부)
- 사업기간 : 2011년 ~ 2020년(10년)
- 주요내용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제반 환경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대기환경정책 : 대기생활환경오염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대기질 개선 및 대기관리 정책기반 기술개발
 - 상하수도정책 : 하수관거 관리효율화, 수질 개선을 위한 공공처리 시설 개선과 시스템 제고 등 상하수도 관리 최적화 기술개발
 - 물환경정책 : 비점 오염원 유입방지 및 저감, 지속가능 물순환 시스템 구축 등 물환경관리 최적화 기술개발
 - 자연보전정책 : 생태네트워크 조성·복원, 하천 및 호소생태계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자연자원 보전 기술개발
 - 자원순환정책 : 친환경 포장설계 기준, 폐기물 수거 및 운송기술 등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아토피, 라돈, 가습기 살균제 등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로 생기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건 공공기술 확보
- 총사업비 : 1,639억원(정부)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10년)

○ 주요내용

-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 라돈, 석면, 빛공해,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유해인자별 위해성평가 및 저감·관리기술 확보를 통한 위해도 저감
- 환경성질환 대응 : 환경오염 및 유해요인으로 인한 위험인구를 저감하기 위한 환경성질환과 환경유해인자와의 상관성 규명 및 저감·관리 기술 확보
-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 Biocide 등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를 위한 위해성·노출 평가 및 위해저감·관리 기술개발
- 환경호르몬 통합위해관리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호르몬 물질 배출량 저감 및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평가 시스템 개발·적용
- (다부처)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 국민 건강 및 산업경쟁력을 고려하여 생화학제품(위해우려제품)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을 개발

□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반기술 개발
- 총사업비 : 855억원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8년) ※ 2012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 주요내용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온실가스 감축 국제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지원을 위한 2개 분야 4개 프로그램 추진
 -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분야
 - 온실가스 감축 통합분석 기반기술 : 현실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 계획 수립을 위해 경제적 및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감축모형 개발
 - 국가 인벤토리 고도화 기반기술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발간 및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관리를 위한 검증 평가 기술개발

-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분야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평가 기반기술 : 부문별 상호영향을 고려하여 생태계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모형 개발
- 기후변화 적응관리 기반기술 : 기후변화 적응정책 추진에 따른 정량적 파급효과 분석 등 적응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등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총사업비 : 910억원
-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
- 주요내용
 - 화학사고 환경피해대비 기술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환경피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술개발
 - 화학사고 환경피해저감 기술 :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대기, 수질오염, 생태계 피해 등 환경피해 저감기술개발
 -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 : 화학사고 종료 후 인체 및 생태계 최적 사후관리를 통한 피해복구 범위 최소화
 -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구축 기술(다부처공동) : 유해화학물질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응급대응정보 제공으로 국민보호 및 피해 최소화

1. 국민성과포럼 및 성과발표회 개최 목적은?

- 환경R&D사업을 기획하는 정부,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 기술 수요자인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환경R&D 국민배심원단이란?

- 국민이 공감하는 환경R&D를 추진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써, 과제 평가 시 배심원단이 참석하여 공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수요자 중심의 환경R&D 개발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 국민배심원단은 환경분야에 관심있는 20세 이상의 일반인으로 구성하며, 현재 제4기 국민배심원단 70명(임기 2016.5월 ~ 2018.4월)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공공 환경기술개발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국민 생활환경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익형 기술개발 사업으로, 대기·물 환경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인체 유해인자 관리 및 환경성질환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국가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 최소화 및 사후관리를 위한 화학사고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람과 자연의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 **4차 산업혁명** :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에서 처음 언급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여러 분야의 기술과 결합되어 제품·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
- **IoT(I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
- **빅데이터(Big Data)**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수치 데이터뿐만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을 위해 차일단과 함께 해요!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 행사 진행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은 11월 둘째주를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고용차별예방 워크숍 및 차별예방 홍보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국 6개 지역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전개한다.
 -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이하 ‘차일단’)은 △차별예방교육, △차별진단 및 상담, △차별개선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캠페인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예방·개선하는 전문기구로 전국 6개 지역사무소(서울, 경인, 대전, 대구, 경남,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 현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과제인 ‘비정규직 차별개선 및 격차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 동안 집중 홍보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였다.
- 차일단 서울사무소(소장 이종현)는 11월 9일 중소기업중앙회 상암 DMC타워 3층 중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고용차별예방 워크숍을 개최한다.
 - 워크숍에서는 고려대학교 박지순 교수(법학)가 비정규직 차별개선의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유정엽 실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완 본부장 토론자로 나선다.
 - 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차별개선 지도사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사례, 그리고 차일단 서울사무소의 차별진단사례 공유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개선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종합토의를 진행한다.
- 차일단 대전사무소(소장 김종효)는 고용차별예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위해 대전·충청지역 5개 지방고용관서와 공동으로 일주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 전후를 활용하여 릴레이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 캠페인’을 전개한다.
 - 11월 6일(월)에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대전시청역 주변 일대에서,

7일(화)에는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천안 아라리오 광장 일대에서, 8일(수)에는 청주고용노동지청과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9일(목)에는 보령 고용노동지청과 청운대학교 홍성캠퍼스 정문에서, 10일에는 충주고용노동지청과 충주공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약 5,000여명의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 5일간 ‘차별없는 일터 노동존중사회 실현’, ‘비정규직 고용차별 ZERO 사회 만들기’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 관련 안내자료와 홍보물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고용차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 차일단 **경인사무소**(소장 박문배)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11월 8일(수)에는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광장에서, 9일(목)에는 쌍용테크노파크 단지 내 광장에서 ‘고용차별없는 부천시 만들기 공동캠페인’을 진행한다.

- 부천지역 주요 산업단지에서 부천시 근로자들의 4대 고용 기초질서 준수 및 고용차별과 관련한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근로자들의 상담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차일단 **대구사무소**(소장 이승재)는 대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구역앞 광장에서 11월 10일(금) 오후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일터혁신·차별개선분과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강조주간 캠페인**을 전개한다.

- 캠페인에서는 ‘차별없는 일터 노동존중사회 실현’, ‘차별없는 공정대구 만들기’ 가두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정규직 고용차별예방 관련 안내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고용차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계획이다.

- 차일단 **경남사무소**(소장 이남우)는 11월6일(월)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한국노총 마산지역본부 소속 노조간부 및 단위사업장 위원장 4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 교육은 비정규직 인사노무관리 실무, 고용차별자율개선 사례, 노동조합 간부가 알아야할 노동관계법을 주제로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고용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차일단 **전북사무소**(소장 민왕기)는 고용차별예방 강조주간을 계기로 그동안

적극적인 개선지원을 하지 못했던 제주지역 사업장들의 고용차별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 11월 10일(금)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무지개마을 70여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차별예방 방문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제주지역 사업장에 대한 고용차별진단 및 방문교육을 적극 확대하여 비정규직 차별예방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정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해 함께 개선 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고용차별 강조주간 활동이 시민들에게 차일단 사업을 더욱 잘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재단은 차별없는일터 지원단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문제 예방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및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8.0%”

-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결과 발표 -

▪ 여성참여율 부진한 28개 위원회 대상 개선 권고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449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8.0%(17.6.30. 기준)라고 밝혔다.

○ 이는 2013년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①한 이래 참여율이 10.3%p 상승(2013년 27.7% 대비)한 것으로, 올해 말^② 목표인 40%보다 아직 2.0%p 낮은 상황이다.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이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② 같은 법 부칙 제2조: '17.12.31.까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확대를 단계적으로 시행

<정부위원회 '13~'17년 여성참여율>

(단위: 명, %, %p)

구분	'13 (A)	'14	'15	'16	'17.6. (B)	증감 (B-A)
위촉직 전체	6,873	8,305	7,632	7,725	8,288	1,415
위촉직 여성	1,902	2,630	2,633	2,805	3,046	1,144
여성 참여율	27.7	31.7	34.5	37.8	38.0	10.3

<연도별 여성참여율 증가 추이>



□ 기관별로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 43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주관하는 정부위원회의 평균 여성참여율이 40%를 넘어선 곳은 20개 기관으로, 지난해(18개) 대비 2개 증가했다.

◆ 연도별 여성참여율 40% 이상 기관 추이

▶ ('13년) 5개 → ('14년) 9개 → ('15년) 10개 → ('16년) 18개 → ('17년 6월) 20개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평균 비율이 40% 이상이면서 동시에 주관 위원회 모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한 기관은 병무청, 인권위 등 13개다.

◆ 주관하는 모든 위원회가 여성참여율 40% 이상 달성한 기관 (13개)

▶ 병무청(57.3%), 인권위(53.6%), 여가부(52.7%), 관세청(47.0%), 식약처(45.2%), 특허청(45.2%), 국세청(45.0%), 법제처(43.7%), 공정위(41.7%), 통계청(41.7%), 농진청(41.5%), 권익위(41.3%), 기상청(40.0%)

□ 위원회별로는 총 449개 위원회 중 244개 위원회(54.3%)가 여성참여율 40% 이상을 달성하였으나, 44개 위원회는 여전히 20% 미만이다.

- 여성가족부는 여성위원의 참여 수준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성위원 확대를 촉구하는 **개선 권고**를 실시하였으며, 연내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 양성평등실무위원회 구성

▲ 위원장: 여성가족부 차관 ▲ 위원: 안건 관계부처 양성평등정책책임관(기조실장 등)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부위원회에 다양한 여성 인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수시로 참여율을 확인하고 여성후보를 추천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공영역의 **성평등한 의사결정 참여가 당연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7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2. 2017년 상반기 개선권고 대상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참 고 관련 보도자료 현황

배포 일시	제목	내용(요약)
2015. 11. 26.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비율 첫 공개, '여성 28.5%'	전국 지자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공개(상하위권 지자체 현황 포함) 및 2017년까지 확대목표 수립
2016. 3. 22.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4.5%, 역대 최고치 경신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위원회 관리 강화 방안(시스템 구축, 지자체 위원회 현황 공표 등) 마련
2016. 6. 2.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30.1%	전국 지자체(243개)별 위원회의 여성참여 현황을 처음으로 발표
2016. 7. 19.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40% 이상 기관, 정부 초 대비 3배 이상 증가	2016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결과 공개
2017. 3. 28.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37.8% 역대 최고치	2016년 말 중앙행정기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결과 공개
2017. 7. 5.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여성참여율 32.3%	2016년 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참여율 조사 결과 공개

붙임 1 '17.6월말 기관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17.6.30. 기준)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17.6월말 조사결과			'16.12월말 하반기 여성참여율 (위원회평균)	'16.12월말 대비 증감
			위촉직 전체위원	위촉직 여성위원	여성참여율 ^① (위원회평균)		
	전 체	449개	8,288명	3,046명	38.0%	37.8%	0.2%p
1	기획재정부	24개	236명	75명	35.2%	35.1%	0.1%p
2	교육부	27개	1,098명	485명	43.5%	43.8%	-0.3%p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개	272명	105명	38.6%	37.6%	1.0%p
4	외교부	1개	5명	1명	20.0%	30.0%	-10.0%p
5	통일부	3개	25명	5명	21.5%	28.1%	-6.6%p
6	법무부	22개	155명	69명	44.5%	40.4%	4.1%p
7	국방부	9개	264명	96명	51.2%	51.9%	-0.7%p
8	행정안전부 ^②	32개	512명	171명	37.1%	-	-
	(행정자치부 이관)	24개	272명	105명	37.5%	36.4%	1.1%p
	(국민안전처 이관)	8개	240명	66명	36.1%	34.8%	1.3%p
9	문화체육관광부	13개	173명	71명	38.3%	35.6%	2.7%p
10	농림축산식품부	24개	320명	118명	44.7%	44.8%	-0.1%p
11	산업통상자원부	29개	357명	129명	37.9%	37.3%	0.6%p
12	보건복지부	41개	559명	187명	34.4%	35.7%	-1.3%p
13	환경부	15개	322명	95명	30.9%	28.5%	2.4%p
14	고용노동부	13개	350명	66명	30.6%	29.7%	0.9%p
15	여성가족부	9개	62명	33명	52.7%	52.5%	0.2%p
16	국토교통부	49개	1,237명	376명	30.7%	31.9%	-1.2%p
17	해양수산부	15개	184명	72명	39.7%	38.8%	0.9%p
18	중소벤처기업부	7개	69명	33명	50.7%	51.9%	-1.2%p
19	국가인권위원회	1개	28명	15명	53.6%	53.6%	-
20	방송통신위원회	7개	59명	21명	35.9%	38.9%	-3.0%p
21	공정거래위원회	2개	7명	3명	41.7%	41.7%	-
22	금융위원회	6개	36명	15명	42.0%	48.2%	-6.2%p
23	국민권익위원회	2개	66명	28명	41.3%	38.9%	2.4%p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개	30명	6명	19.2%	22.3%	-3.1%p
25	국무조정실	10개	107명	34명	32.1%	32.9%	-0.8%p
26	국가보훈처	4개	149명	35명	30.3%	30.9%	-0.6%p
27	인사혁신처	10개	80명	29명	37.7%	37.3%	0.4%p
28	법제처	1개	151명	66명	43.7%	42.9%	0.8%p
29	식품의약품안전처	9개	477명	210명	45.2%	45.2%	-
30	국세청	4개	46명	20명	45.0%	40.8%	4.2%p
31	관세청	4개	59명	26명	47.0%	47.0%	-
32	통계청	1개	12명	5명	41.7%	41.7%	-
33	대검찰청	1개	7명	2명	28.6%	28.6%	-
34	병무청	2개	327명	199명	57.3%	56.6%	0.7%p
35	방위사업청	2개	9명	3명	32.5%	33.3%	-0.8%p
36	경찰청	2개	12명	3명	27.1%	18.3%	8.8%p
37	소방청 ^②	4개	95명	28명	43.0%	43.0%	-
38	문화재청	4개	123명	31명	35.4%	36.4%	-1.0%p
39	농촌진흥청	3개	31명	13명	41.5%	40.7%	0.8%p
40	산림청	6개	93명	36명	37.2%	33.8%	3.4%p
41	특허청	3개	57명	24명	45.2%	45.2%	-
42	기상청	1개	5명	2명	40.0%	40.0%	-
43	해양경찰청 ^②	3개	22명	5명	24.2%	27.5%	-3.3%p

① 여성참여율 : 주관기관 위원회별 위촉직 여성비율의 평균 ② 행안부·소방청·해경청은 안전처 소관 위원회 이관받음

붙임 2 '17년 상반기 개선권고 대상 위원회 목록

연번	주관기관	위원회	'17.6.30. 위촉직 위원 현황		
			전체	여성	비율
1	기획재정부	배출량인증위원회	7	0	0.0%
2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12	2	16.7%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12	2	16.7%
4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9	1	11.1%
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6	1	16.7%
6	행정안전부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12	2	16.7%
7	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12	1	8.3%
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8	1	12.5%
9	보건복지부	국가노후준비위원회	6	1	16.7%
1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13	2	15.4%
11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19	1	5.3%
12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9	0	0.0%
1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12	1	8.3%
14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13	2	15.4%
15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56	9	16.1%
16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13	2	15.4%
17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165	19	11.5%
18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6	5	19.2%
19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6	1	16.7%
20	국토교통부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16	3	18.8%
21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6	4	15.4%
22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2	1	8.3%
23	국토교통부	항공학적검토위원회	6	0	0.0%
24	해양수산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17	2	11.8%
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11	2	18.2%
2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4	1	7.1%
27	경찰청	경찰위원회	7	1	14.3%
28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78	13	16.7%

평창 선수단,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들어온다

내년 1월 18일 공식 개장...4단계 사업 완료 시 여객 1억 명 수용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일이 2018년 1월 18일로 확정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3주 가량 앞둔 내년 1월 18일 공식 개장해 운영을 시작한다.
 -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오픈(1월 30일)과 현지 적응을 위하여 조기 입국하는 선수 및 대회 관계자에게 보다 쾌적한 서비스 제공 등 우리나라 대표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개장하게 되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체크인, 보안검색, 세관검사, 검역, 탑승 등 출입국을 위한 모든 절차가 제1여객터미널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터미널이다.
 - 대한항공, 델타, 에어프랑스, KLM 4개 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로 이전하고,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그 외 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에 남는다.
 - 제2여객터미널의 개장으로 인천공항은 연간 7,200만 명의 여객과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세계적 수준의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의 명실상부한 핵심 공항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주변공항들과의 허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관문 공항으로서 지난 2001년 3월 개항한 이후 이용객이 연평균 7.5% 증가하며 빠른 성장을 이뤄왔다.
 -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등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 사업을 완료했으며, 2009년 6월부터는 제2여객터미널과 제2교통센터 및 연결 교통, 부대 시설 등을 신축하는 3단계 건설 사업에 돌입했다.

- 3단계 건설 사업은 약 5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13년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화됐으며, 착공 이후 510만 명의 인원과 87만 대의 장비가 동원되어 구슬땀을 쏟아낸 끝에 마침내 지난 9월 말 완공됐다.
- 3단계 건설기간 중 9만 4천 개의 일자리와 12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4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추산되고, 제2여객터미널 운영으로 일자리도 약 8,500개가 늘어난다.
- 지금까지 총 4회의 종합시험운행을 통해 실제 운영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였고, 시설 및 시스템 안정화, 운영인력 교육과 관숙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면세점 등 상업시설 공사 및 입점, 항공사 이전을 적기에 마무리해 운영준비에 완벽을 기할 계획이다.
- 제2여객터미널은 출입국 대기 공간 확대, 자동탑승권발급 등 무인 자동화서비스 확대, 환승시설을 인접 배치한 환승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출입국과 환승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 특히, 버스·철도 대합실을 제2교통센터로 통합 배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한결 편리해지며, 교통센터와 여객터미널 간 이동거리도 제1여객터미널에 비해 대폭 단축(223m→59m)됐다.
- 안내로봇, 양방향 정보안내가 가능한 운항정보표출시스템(FIDS) 등 각종 스마트 기술로 여객 안내를 강화하고, 최신형 원형보안검색기를 도입해 항공보안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 슬라이딩 박스, 스포츠 및 게임 공간 등의 환승편의시설, 활주로와 항공기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탁 트인 상설 문화공간 '그레이트홀(Great Hall)', 미디어월과 실내·외 대규모 조경

등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남은 2달여 동안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운영 준비에 완벽을 기하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첨단기술로 더욱 편리해진 스마트 에어포트, 자연과 함께 숨쉬는 그린 에어포트,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아트 에어포트로서 국내·외 여행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세계 공항업계를 선도하는 공항으로서 다시 한 번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인천공항이 국내 공항 최초로 세계 우수 공항들과 같은 복수의 국제선터미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고, 이용객들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인천공항, 이제는 4단계다!”… 여객 1억 명 시대 준비

- 인천공항은 3단계 건설 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제2여객터미널 시설을 확장하는 4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며 발 빠르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사업을 비롯해 최종 단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을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6일 확정했다.
- 특히 저비용항공사(LCC)의 성장과 항공자유화 등의 영향으로 아태지역의 항공수요가 향후에도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사업을 통해 미래 항공시장을 선점하고 동북아 대표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 4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의 여객처리 능력은 연간 1억 명까지 확충된다.
- 세계 각국 공항이 경쟁적으로 시설 확장에 나서고 있지만, 국제여객 1억 명 규모로의 확장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약 4조 2천억 원이 투입될 4단계 사업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연간 여객 처리 1,800만 명→4,600만 명)을 비롯해 제4활주로 신설, 진입도로와 계류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단계 건설기간 중 5만 명의 일자리와 8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 2조 8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
- 올해부터 4단계 사업 설계에 착수해 2023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예정이나, 완료시점은 항공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4단계 사업을 통해 인천공항은 인공지능(AI)과 생체인식,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더욱 확대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공항을 구현한다.
- 생체인식 기반 체크인 및 탑승 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검색 X-ray 판독, 고도화된 안내로봇 등이 그 예다.
- 또한, 공항 내부뿐 아니라 주변지역까지 아우르는 조경을 완성하고,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 이상 늘려 인천공항 에너지 사용량의 27% 이상을 충당함으로써 진정한 녹색공항, 친환경 공항으로 거듭난다.
- 인천공항은 4단계 이후 최종단계에 이르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통해 제3여객터미널과 제5활주로를 바탕으로 1억 3천만 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됨으로써, 국제선 기준으로 싱가포르 창이공항(1억 3천만 명, 2025년), 두바이 알막툼공항(1억 6천만 명, 2030년)에 이어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 사업개요

- '09~'17(9년간) 총4.9조원을 투입,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 접근/연결교통 등 공항 인프라 단계적 확장추진

구 분		1, 2단계	3단계	비 고
여객터미널		5,400만명 (T1 ↔ 탑승동A)	1,800만명 (T2 일부)	7,200만명
화물터미널		450만톤	50만톤	500만톤
교통센터		250천 m ²	184천 m ²	
IAT		0.9km 복선서틀	1.5km 복선서틀	
공항철도		서울역↔김포↔T1 59.3km	서울역↔T1↔T2 연결철도 6.4km	65.7km
계류장	여 객	여객 109개소	여객 56개소	여객 163개소
	화 물	화물 36개소	화물 13개소	화물 49개소

□ 추진경위

- '09. 6 :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변경고시(6차)
- '10. 6 : 3단계 기본설계 용역(공항시설 '10. 6, 건축시설 '11. 7)
- '12. 12 : 인천국제공항건설 기본계획(3단계) 변경고시(7차)
- '13. 6 : 제2여객터미널 땅파기 및 파일공사 착수
- '14. 8 : 여객계류장 시설공사 착수
- '15. 5 : T2 건축마감 및 부대설비공사 착수
- '15. 11 : IAT/BHS 터널구조물 공사 완료
- '16. 4 : 제2여객터미널 영구전원 공급
- '16. 4 : 제2여객터미널 상량식 행사
- '16. 10 : T2 수하물처리시설(BHS) 계통시험 착수
- '17. 4 : 시험운영 착수
- '17. 9 : 3단계 시공 및 시험운영 완료
- '17. 9~ : 운영준비 관속화

□ 연차별 사업비 현황

구 분	‘13년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	전 체
사업비(억원)	2,058	5,360	11,210	15,401	15,274	49,303

□ 자원투입 현황(3단계 착공이후 완료까지)

- (인 력) 시공관리 등 150개 분야, 누계 510만 명
- (장 비) 덤프트럭 등 약 100여종, 누계 87만 대

* 피크(‘16. 3) 시 일일 자원투입현황 : 인력 8,000명, 장비 1,500대

□ 각종 비교 및 참고 수치

구 분	비교 대상		
	제2여객터미널	부르즈 할리 파	롯데월드타워
총공사비	2조 원 (3단계 전체사업비 4조9천억 원)	1조7천5백억 원 (15억달러)	1조7천억 원 (롯데월드몰 전체 사업비 3조8천억 원)
연면적	387천 m ² (코엑스몰 11만9천 m ² , 여의도공원 21만 m ²)	500천 m ²	328천 m ²
콘크리트 레미콘	216만 m ³	33만 m ³	19만5천 m ³ (‘15.9기준)
건축물무게	89만톤	45만톤	75만톤
철근량	2만2천톤	3만9천톤	약4만톤
철골재량	7만4천톤 (에펠탑 10개 물량)	-	약4만톤
지붕면적	162,957 m ² (상암 월드컵경기장 전체면적의 3배)	-	-
외장유리 면적	9만7천 m ² (잠실야구장 면적의 약 7배)	17만4천 m ²	-

해외에서 우리 수산식품 판촉행사 동시 개최

- 11.4~19일간 16개국에서 'K·SEAFOOD Global Week 2017'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1월 4일(토)부터 19일(일)까지 우리나라 수산식품 주요 수출 16개국* 600여 개 매장에서 우리 수산식품 판촉행사인 'K-SEAFOOD Global Week 2017'을 처음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대만, 호주, 싱가포르, UAE,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체코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목인 '김'의 수확·출시(10월말~11월초)와 광군제(11.11)·블랙프라이데이(11.24) 등이 진행되는 최대 소비시즌에 맞추어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우리나라 수산식품 판촉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16개국 현지에서 온오프라인 매장* 총 601개소**에서 진행되며, 이미 해외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우리나라 '김'을 중심으로 어묵, 굴, 고등어 등 총 110개 제품에 대한 할인 및 판촉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 (오프라인) 미국 Whole Food Market, 중국 리지아베이비, 일본 이온리테일, 대만 까르푸 등

(온라인) 중국 본래생활, 일본 라쿠텐, 대만 모모홈쇼핑, 싱가포르 레드마트 등

** 국가(매장) : 日(291), 中(106), 美(82), 베트남(47), 대만(16), 호주(11), 싱가포르·UAE(8), 캐나다(7), 홍콩·인도네시아·뉴질랜드(5), 필리핀(2), 태국·말련·체코(1)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식당(비비고) 15개 지점에서 수산물 특선 메뉴(미역국, 가자미구이 등)를 최초로 선보이며, 대만홈쇼핑에서는 '모듬어묵' 판매행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해외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우리나라 수산식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밖에 중국의 유튜브(Youtube)인 '요우쿠'와 '투또우', 아랍권의 '알자지라' 채널 등에 광고를 진행하여 이번 판촉행사와 우리나라 수산식품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그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해외 소비자 대상의 B2C 판촉행사의 효율성·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 대표 수출식품인 김의 출하시기에 맞추어 'K-SEAFOOD Global Week 2017' 행사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동 행사를 통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져 수출기반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외국 소비자 반응, 판매실적 등을 토대로 행사의 연례화·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K · SEAFOOD Global Week 추진계획 요약

□ 추진 목적

- 우리 수산식품(소비재) 인지도 제고, 수출목표(25억불) 달성을 위해 주요 수출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우리 수산식품 붐(Boom) 조성

< 유사 행사 사례 >

- * (Korea Sale FESTA) 내수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 주관의 국내 쇼핑관광축제
- * (보즐레누보) 프랑스는 매년 11월 셋째 목요일에 햇포도주 전세계 동시 판매

□ '17년도 K-SEAFOOD Global Week 행사계획(안)

- (개요) 16개국 601개 매장*에서 16일간 60여개 국내 생산업체의 110개 종류 수산식품의 동시다발적 온·오프라인 홍보행사 전개

- * 국가(매장) : 日(291), 中(106), 美(82), 베트남(47), 대만(16), 호주(11), 싱가포르·UAE(8), 캐나다(7), 홍콩·인도네시아·뉴질랜드(5), 필리핀(2), 태국·말련·체코(1)

- (기간) '17. 11. 4(토) ~ 19(일), 16일간(매년 11월 첫째 토요일 시작)
 - * 대표 수출품목인 김이 첫 수확·출시되는 시기(10월 말~11월 초)에 맞추고, 中 광군제(11.11), 美 블랙프라이데이(11.24) 등의 최대 소비시즌과 연계
- (주요미디어) 요우쿠(중국 유튜브) 3백만회 광고, CGV(중국 20지점) 스크린 광고, 알자지라(아랍권 약 80% 시청) CF 74회·웹 40만회 광고
- (주요행사) Whole Food Market 특판, 대만홈쇼핑(모듬어묵), CGV 김스낵 콤보·CJ 비비고 수산특선요리(미역국, 가자미구이) 런칭 등

□ 향후 추진일정

- 사업 추진 : 11.4. ~ 19, 2주간(보도자료 11.3 배포)
- 사후 실적 취합 및 분석 : 12월 초

참고2

수산물 생산업체 리스트(60개 업체)

No	업 체 명	No	업 체 명	No	업 체 명
1	CJ	21	보령수협	41	장흥군수협
2	gimme health	22	부산어묵	42	정화
3	Hi-T	23	사조해표	43	진주햄
4	QKC	24	삼부자김	44	창대
5	SM생명공학	25	삼진글로벌넷	45	청가원
6	거제수협	26	삼해상사	46	청아굿푸드
7	고흥군수협	27	샘표	47	청정원
8	근해통발	28	생생	48	청해랑
9	늘푸른수산	29	서귀포수협	49	플러스
10	대광F&C	30	석하	50	한림수협
11	대흥	31	선망수협	51	한미래
12	동원	32	세화	52	한성
13	리카마운틴 PB	33	속초시수협	53	한양식품
14	마루키타	34	수협	54	해농
15	만전식품	35	신성상사	55	해다진
16	매일푸드	36	아워홈	56	해담온
17	명계수협	37	영심	57	해도식품
18	멸치권현망수협	38	오뚜기	58	해서물산
19	명가	39	오성	59	해표
20	명품김	40	옥동자	60	효성

참고3

수산식품 판매제품 리스트(110개 제품)

No	제 품	No	제 품	No	제 품	No	제 품
1	간고등어	31	냉동 봉장어	61	야채어묵	91	명태강정
2	갈치	32	냉동 자숙굴	62	어묵고로케	92	크래미
3	건꿀뚜기	33	냉동굴	63	어묵면	93	통영굴김
4	건다시마	34	냉동멍게	64	어묵바	94	파래돌김볶음
5	건멸치	35	냉동방어	65	어묵탕	95	한국김 12P
6	건미역	36	녹차김	66	어육소시지	96	해물물만두
7	건새우	37	논우렁이	67	어포스낵	97	해물부추경단
8	건오징어	38	도시락김	68	염장 고등어	98	해물완자
9	건조돔	39	돌자반	69	오곡김	99	해물짬뽕탕
10	건파래	40	참치캔	70	오징어동그랑땡	100	해물파전
11	건홍합	41	동태해장국	71	오징어땅콩	101	해산물 만두
12	게맛살	42	매생이	72	오징어버터	102	해염공등어
13	게살볶음밥	43	매운잡채어묵	73	오징어젓갈	103	해초샐러드
14	고갈비	44	맥반석오징어	74	오징어채	104	허니버터오징어
15	카레고등어	45	멸치 (볶음용)	75	자른미역	105	활굴
16	고등어캔	46	모듬어묵	76	장어필렛	106	황태채
17	고짬	47	바지락순두부	77	전복	107	훈제굴 데리야 키맛
18	고추참치	48	반건조우럭	78	전복캔	108	훈제굴 오리지 널맛
19	과일맛스낵김	49	백진미	79	젓갈	109	올리브유 김
20	구운김	50	사각어묵	80	제주가자미	110	구운 돌김
21	굴스낵	51	새우젓	81	제주삼치		
22	굴크로켓	52	생굴	82	제주은갈치		
23	김밥김	53	선동갈치	83	진미채		
24	김부각	54	선동오징어	84	참치		
25	김스낵	55	손질멸치	85	참치김치찌개		
26	김자반	56	손질문어	86	참쌀김		
27	김탕	57	순살갈치	87	창란젓		
28	김탕밥	58	스낵김(코코넛)	88	쫄아스낵		
29	꾸이꾸이포	59	스낵김(치즈)	89	초코오징어		
30	낙지젓갈	60	스낵김(아몬드)	90	코다리		